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227호 (2010년 10월 넷째 주)

연구기획조정실 · 관광지식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남 영암 F1경주장 주변일대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으뜸명소' 4곳 선정한다.....	2
[농촌진흥청] 이 가을 '강변길' 걷기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3
[한국관광공사] 중국인 관광객 씹셈이 내년부터 더 커진다.....	4
[한국관광공사] 2010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개최.....	5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국제선주차장 최첨단 주차유도 안내시스템 설치.....	6
[경기관광공사] 미술관 나들이, 경기도에서 즐기세요!	6
[제주관광공사] 제2회 제주국제그린마이스위크, 개막 임박.....	7
[서울특별시]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건다!	8
[서울특별시]서울시, G20 정상회의 기간 '도시브랜드마케팅' 올인	9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이 행복한 문화관광체험코스」 10곳 선정	15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수욕장에 해외관광객이 몰려온다!!!.....	19
[울산광역시] 태화강 대공원 '나비 생태원' 조성 완료.....	19
[경기도] 경기도, 日 가나가와현, 中 랴오닝성과 3지역 우호교류회의 개최.....	20
[경기도] 평택항 유럽투자 유치 본격화.....	21
[충청북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결과 공식 발표.....	22
[충청남도] 2010세계대백제전, 경제적 파급효과 2,399억원	23
[전라북도] 『해안경관마을 시범사업』 공모선정.....	23
[전라남도] F1경주도 관람하고 골프도 즐기세요.....	24
[경상남도] 고려대장경, 대중과 소통을 시작하다	25
[해외동향][KOTRA] 영국의 황금알 낳는 거위 - 뮤지컬산업(1).....	26
[해외동향][KOTRA] 영국의 황금알 낳는 거위 - 뮤지컬산업(2).....	31
[해외동향][KOTRA] 경제회복, 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라 싱가포르 Mice 산업 활성화.....	35

[문화체육관광부] 전남 영암 F1경주장 주변일대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조성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난전리 일대(4,288천㎡)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전남 영암 F1 국제자동차 경주장 주변일대를 기업 도시개발 특별법에 의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포지구)는 F1경주장 및 모터 스포츠 도시로 조성한다는 개발 컨셉하에 민간기업(KAVO, 전남개발공사)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난전리일대 4,288천㎡ 면적에 2021년까지 총 1조 8,715억원을 투자하여 약 10,000명의 상주인구와 4,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주형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F1경주장, F1관련 설비단지, F1연구·교육시설, 마리나시설, 방송·통신시설, 주거·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과 함께 젊은 도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함은 물론, 자동차 경주시 발생되는 소음의 영향권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킷 외곽에 마운딩 조성 및 수목을 식재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계기로 ‘영암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기여함은 물론, 건설단계에서 4조 3천억원의 생산효과와 4만 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F1경주장 주변일대를 민간 기업이 수립한 실시계획(안)을 토대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2011년도에 실시계획 승인후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관광레저도시과 이혜주(02-3704-9921) | 등록일 : 2010.10.1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오피명소' 4곳 선정한다

- 인프라·관광프로그램·홍보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올해 말까지 지역관광의 핵심거점이 될 ‘오피명소’ 4곳이 선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중국관광객을 비롯, 일본, 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오피명소’ 4곳을 선정, 맞춤형 패키지로 전폭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피명소는 독특한 자연, 역사, 문화 등 한국적 매력을 지니고 있어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한국의 대표 관광명소로 이미 일정수준에 도달한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프로그램과 인적·물적 인프라, 홍보·마케팅 등 필요한 자원이 모두 지원된다.

또한 핵심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라 자연생태형, 역사문화형, 창의적 문화콘텐츠 형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오피명소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돼 개발,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문화부는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적 특색과 차별화된 테마를 살린 지역의 관광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내 관광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관광정책과(02-3704-9712) | 등록일 : 2010.10.19)

[농촌진흥청] 이 가을 '강변길' 걷기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 농촌진흥청, 「그린로드-풍요로운 강변길」 펴내

농촌진흥청(농촌환경자원과 김상범 박사)은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 5대 강을 따라 펼쳐지는 농촌마을의 아름다운 경관, 맛과 멋, 흥을 느낄 수 있는 마을길을 소개한 「그린로드-풍요로운 강변길」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굴한 강변 마을길은 모두 12곳. 한강권역은 양평 양수리 과수마을의 강과 산, 오롯한 자연경관이 굽이치는 길, 양주 초록지기마을의 감악산 아래 봉암저수지와 원당저수지를 잇는 길, 평창 산채이름마을의 옛 이야기가 흐르는 거슬재 옛길과 거슬치 길, 강릉 왕산골마을의 임내폭포 가는 길, 충주 상대촌마을의 명성황후 이야기가 서린 배바위길 등 5곳이다.

금강권역은 금산 농바우마을의 산과 강과 더불어 걷는 농바우길, 홍성 거북이마을의 구전동화를 듣는 기분으로 걷는 솔바람길 등 2곳이다.

낙동강권역은 함양 물레방아떡마을의 사과향 따라 철걱철걱 이야기가 흐르는 물레방아길, 양산 장선휴마을의 마음 깊은 휴식을 주는 배내골 산책길과 수변길, 영양 두메송하마을의 송하계곡에 발 적시고 걷는 매봉산 등산로와 마을 산책길 등 3곳이다.

섬진강권역은 광양 도선국사마을의 봉광옛길이라 불리는 옥녀봉길과 백운산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서울대 학습림길, 영산강권역은 영암 영보마을의 월출산과 영산강이 품었다 부린 양반마을길 각각 1곳이다.

책자에는 강변 마을길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농촌마을의 다채로운 체험거리, 먹을거리, 잠잘자리, 특산물 등에 대한 소개도 담고 있으며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 해안누리길, 문화생태탐방로 등 우리나라 모든 걷는 길에 대한 정보도 수록해 놓았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해에도 전국 11개 길을 따라 펼쳐지는 33개 농촌마을의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소개한 「그린로드-여유로운 삶·맛·멋의 길」 책자를 펴낸 바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이상영 과장은 “앞으로 농촌이 갖고 있는 녹색의 혜택을 전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린로드를 발굴해 그린투어루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담당: 농촌환경자원과 김상범(031-290-0265) | 등록일 : 2010.10.18)

[한국관광공사] 중국인 관광객 씬씀이 내년부터 더 커진다

- 관광공사-중국은행 ‘한국여행카드’ 공동기획, 방한쇼핑 판촉 나서

올해 중국 국경절 기간 동안 국내 유통업계를 들썩이게 한 중국관광객들의 씬씀이가 내년부터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고소득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은행(China Unionpay)과 손잡고 오는 12월말부터 '한국여행카드'를 발행한다.

‘한국여행카드’는 중국은행 소속 8개 대형 은행에서 은련카드 고소득 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형태로 발급된다. 카드는 한국관광을 소재로 세련되게 디자인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 약 300만장의 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여행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백화점과 면세점 등 주요 유통업체와 놀이공원, 스키장, 호텔, 항공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지 여행사가 판매하는 방한관광 상품도 우대요금으로 구입할 수 있어 중국인들의 한국여행 수요를 진작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 박정하 중국팀장은 “카드발급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관광매력을 높여 2012년 중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18일)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중국 상하이의 중국은행 본사를 방문해 관광공사, 중국은행, BC카드사 3사간 ‘한국여행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이 자리에서 중국내 방한관광 매력 홍보, 방한 쇼핑상품 개발, 국내 가맹점 확대, 중국인 소비성향 조사 등에 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행은 200여개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 결제 네트워크 운영사로 22억장의 카드를 발행, 중국 카드시장의 99%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의 가맹점 수도 작년 1만 7천 개에서 올해 9월말 기준 7만 개로 급증해, 증가하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수와 맞물려 유통업체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관광공사와 은련카드가 공동으로 추진한 중국 국경절 이벤트기간 동안 중국관광객의 은련카드 사용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롯데백화점 318%, 신세계 270%, 현대백화점 81% 등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한국관광공사, 담당: 중국팀 진종화(02-729-9362) | 등록일 : 2010.10.19)

[한국관광공사] 2010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개최

- 오는 26, 27일 양일간 3,000여명 참가규모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주관하는 “2010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Asia Pacific Tourism Investment Conference 2010)”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는 국내유일의 관광개발 및 투자부문 전문행사로 올해로 5회를 맞이한다. 올해 컨퍼런스에서도 세계관광업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개발과 투자에 대한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공유하고 국내외 투자자와의 상담을 통해 업계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먼저 26일에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 회장 Mr. Gregory A Duffell가 ‘아시아? 태평양 관광시장 새로운 도전과 발견’이라는 주제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태지역 관광시장에 대하여 기초연설을 한다.

그리고 양일간 ‘녹색관광개발’, ‘융복합관광’, ‘안티에이징’, ‘해양관광’ 등에 관한 총 5개의 세션이 열린다.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세션에서는 최근 아태지역 나라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의 투자 동향과 주제별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주요 선진국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부동산투자신탁)의 관광사업 투자 현황 및 국내 도입 방안 등을 살펴본다.

또한 <성공적인 녹색관광 시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션에서는 각국정부나 관광사업자들의 녹색관광 인프라로서 미래형 건축물 건립 및 운영사례와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변 관광 활용 방안들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관광공사 김배호 투자지원팀장은 “동 행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가진 지자체나 기업, 금융기관과 투자관련 업체, 건축가, 컨설팅업체 등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나아가 한국이 유망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부랴티야 공화국 상공회의소의 관광, 리조트, 호텔업 위원회 위원장 일행이 참가하여 자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사 후 내장산리조트 및 새만금,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동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등록은 2010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홈페이지(www.aptickorea.com) 또는 2010 APTIC사무국(02-7299-635)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담당: 투자지원팀 강철(02-7299-635) | 등록일 : 2010.10.20)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국제선주차장 최첨단 주차유도 안내시스템 설치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 서울지역본부는 김포공항 국제선 주차장에 최첨단 주차유도 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주차유도 안내시스템은 카메라방식을 활용해 주차가능 대수와 주차가능 공간을 LED를 통해 표시하여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유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차를 찾을 때 차번호를 입력하면 주차요금, 위치 및 최단거리 동선정보까지 제공해준다. 또한 입·출차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사고 추적 및 보안기능을 강화하였다.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황용)는 최첨단 주차유도 안내시스템 설치로 특히 G20행사를 계기로 공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이용객들의 편의증진 및 김포공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담당: 양승의 | 등록일 : 2010.10.18)

[경기관광공사] 미술관 나들이, 경기도에서 즐기세요!

- 전시, 퍼포먼스, 재즈음악회 등 다채로운 미술관 이벤트

모호함과 추상성으로 높기만 했던 미술관의 벽을 허물자. 쉽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미술관이 변화하고 있다. 경기도 내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미술관 등에서는 그림을 볼 뿐 아니라 음악을 듣고 직접 동화를 만드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올 가을,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미술관 속 예술로 빠져보자!

<재즈 듣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1973년 경복궁에서 개관한 이래 경기도 과천으로 신축 이전했다. 이름 그대로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미술관으로 2006년엔 개관 20주년을 맞이할 만큼 역사도 함께 담고 있다. 현재 상설전시로는 박수근, 이중섭 등 2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한 ‘컬렉션, 미술관을 말하다’와 ‘잊혀진 전쟁, 현실의 분단’ 등이 있다.

또한 어린이미술관에서는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와 연계한 “가자! 미술관으로” 교육이 운영 중이다.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작품감상법과 관람 에티켓도 배운다. 움직이는 장난감 만들거나 나만의 달 토끼 동화책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미술관에서 재즈 듣기”가 한창이다. 재즈 공연 무대가 미술관에서 펼쳐져 미술관 입장과 동시에 재즈공연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미술관 가는 날’로 정해 상시공연 뿐 아닌 기획전도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또한 특이하게도 한복을 착용하면 상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엔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장난꾼들의 미술,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위치한 백남준 아트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 다양

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삼원소, TV물고기, TV시계, 로봇456 등을 비롯해 2천여 점의 작품이 전시중이며 입장이 무료다.

현재 ‘2010 백남준아트센터 국제 퍼포먼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퍼포먼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6시에 이뤄진다. 일정에 따라 퍼포먼스를 펼치는 작가가 다른데 10월 15~16일에는 콘택 곤조, 10월 22~23일은 우메다 테츠야 등 총 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우메다 테츠야는 폐품이나 생활용품을 결합해 빛이나 소리, 움직임을 만들어 내거나, 현장의 상황을 공연에 반영하는 등 일회성이 강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하고 있는 전시로는 ‘트릭스터가 세상을 만든다’가 있다. 트릭스터는 ‘트릭을 구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동화나 민담 속에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장난꾼이다. 백남준을 위시해 세계 13명의 예술가가 상설전과 기획전에 참여한다.

〈옹기종기 즐거움의 미학, 경기도 미술관〉

미술관에서 도깨비방망이를 만나보자. 안산시 단원구 동산길 화랑유원지 내에 위치한 천장이 열리는 미술관, 경기도 미술관에서. 현재 한국과 호주 국제 교류전인 ‘The Trickster: 도깨비 방망이’ 전시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호주의 독립 큐레이터 빅토리아 린을 공동 기획자로 초청해 진행되며 국내외 영상작가 17명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미술관 내 전시 및 모든 동반프로그램의 참가료는 무료다. 이번 16일(토)에는 ‘옹기종기 음악회’가 개최된다. 미술관에서 매달 이뤄지는 음악회는 경기도미술관 옆 무대에서 이뤄지며 이번 공연은 동산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 그밖에도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복지관 소속 아동 청소년 공연팀이 난타와 요들 그리고 오카리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 이상 그림만 뚫어지게 쳐다봐야 하는 미술관이 아닌, 음악을 듣고 사람들과 교감하는 미술관에 들러보자.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 포털사이트 이땅큐(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 | 등록일 : 2010.10.20)

[제주관광공사] 제2회 제주국제그린마이스위크, 개막 임박

- 오는 11월 7일~14일 해비치호텔&리조트 등 동부 일원
- 기업회의, 산업인센티브, 친환경 개념 중심의 기획 구성

마이스산업을 아시아 최고 수준의 녹색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제주국제그린마이스위크’의 두 번째 행사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주최, 제주관광공사 주관의 ‘제2회 제주국제그린마이스위크(The 2nd JEJU International Green MICE Week)가 오는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해비치호텔&리조트와 휘닉스아일랜드 등 제주 동쪽 일원에서 개최된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제2회 제주국제그린마이스위크’ 기획에서 친환경개념을 강화하고,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투어 시장에 집중했다.

‘제2회 제주국제그린마이스위크’는 △제주 인센티브투어&미팅포럼(주최: 지식경제부, 제

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주관 : 제주관광공사)과 △2010 월드트레일컨퍼런스(주최 : 지식경제부,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주관 : (사)제주올레, 제주관광공사) 등의 본 행사와 △Korea Smart Gird Week(주최 : 지식경제부, 주관 : (재)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2010 제주올레 걷기축제(주최:서귀포시, (사)제주올레), 주관 : 제주올레 걷기축제 운영위원회) 등의 연계행사로 구성돼, 제주의 ‘그린 마이스(Green MICE)’ 를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제주관광공사 | 등록일 : 2010.10.20)

[서울특별시]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

- 서울의 숨은 명소를 찾아다니는 서울문화예술탐방 ‘건축투어’ 를 책으로 엮어
- 서울의 사대문 안과 구도심, 강남일대와 부도심 곳곳의 312채 건축물을 찾아가는 32개 코스 개발, 시민들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도록 안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안호상)은 600년 역사의 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건축물을 통해 조명한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전2권)』를 출간하였다.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는 (재)서울문화재단이 기획하고 건축사학자 임석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가 1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서울 곳곳을 직접 누비며 서울의 의미 있는 건축물을 한데 모아 엮은 ‘서울 건축탐방 가이드’ 이다.

경복궁과 송례문에서 남산골 한옥마을, 인사동 짬지길, 그리고 삼성무역센터와 강남교보타워에 이르기까지, 책속에 등장하는 312개의 건축물을 통해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서울의 정서를 담고 있다.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전2권)』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서울의 대표 탐방 프로그램, ‘서울문화예술탐방’ 중 <건축투어>의 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엮은 서울 건축탐방 가이드의 결정판이다.

서울문화재단은 2007년을 시작으로 매해 4월부터 10월까지 건축, 문학, 미술, 연극, 역사유적,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테마로 문화해설사와 함께 서울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서울문화예술탐방’을 올해까지 총346회, 2010년에만 62회 무료로 진행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테마별 ‘서울문화예술탐방’의 기록과 함께 탐방을 통해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서울을 걷다” 시리즈를 책으로 발간하여, 탐방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이라도 책을 통해 서울 속 명소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는 2009년 『서울, 문학의 도시를 걷다』 이후 두 번째로 기획된 "서울을 걷다" 시리즈로, 이 책을 들고 건축물 하나하나를 찾아 길을 걷다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건축, 근대건축, 현대건축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고민과 한국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찰까지 서울의 건축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담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임석재)는 서울의 의미 있는 312채의 건축물을 찾아 떠나는 32개 최적의 코스를 800여장의 직접 찍은 사진과 저자가 손으로 직접 그려 넣은 40여장의 상세한 지도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각 건축물의 설계자나 설계의도, 완공시기, 시공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소개, 건축물의 과거와 현재의 위상을 비교·분석하여 현 사회를 진단해 보는 비판적 시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건축이 예술과 문화가 되며, 여행이자 역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한다.

1권(사대문 안과 구도심)에서는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남으로는 용산, 북으로는 성북동, 동으로는 한성대학교, 서로는 신촌까지 포함하는 구도심 지역의 건축을 소개하고 2권(강남 일대와 부도심)에서는 강남의 4개 코스 등 구도심 밖의 주요 지역 건축물을 다루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 『서울, 문학의 도시를 걷다』, 2010년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에 이어 서울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시민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정보와 이야기를 담은 “서울을 걷다” 시리즈를 앞으로도 계속 발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손정미(02-3290-7144) | 등록일 : 2010.10.15)

[서울특별시]서울시, G20 정상회의 기간 ‘도시브랜드마케팅’ 올인

- 서울의 이미지 국가브랜드와 직결, ‘신흥경제국’ → ‘선진국’ 각인 역할
- ‘디자인 서울’ 역점 세일즈 포인트로 정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견인
 - ‘유네스코 세계 디자인 창의도시’ 국제인증 모든 홍보물에 활용
- 도시브랜드마케팅 : 1만 명 외국인들의 서울 매력 체험 돕는데 역점
 - 프레스투어 : 2천여 세계 각국 기자들 대상으로 3일간 12개 코스 운영
 - 참가자 및 Business Summit 참가 CEO·배우자 투어 : 주·야간 총 11개코스 등
 - 참가자 숙소 30개소에 「Seoul①Center」 설치, 고품격 종합안내서비스
- 친절한 도시 : 20개 단체 민관협의회+6천여 자원봉사단+시민참여
- 교통·안전·숙박·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마무리 단계
- 오 시장, “ ‘G20을 성공적으로 치른 도시’ 라는 수식어, 강력한 경제효과 창출”

오세훈 시장이 G20 서울 정상회의 D-20일을 앞두고 21일(목) 「서울시 G20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 이번 국제회의를 서울의 브랜드를 세계에 마케팅할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비전과 세부 도시마케팅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G20을 성공적으로 치른 도시’ 라는 수식어 갖게 되면, 그동안 기울여온 어떠한 노력이나 투자보다 강력한 경제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이미지 국가브랜드와 직결, ‘신흥경제국’ → ‘선진국’ 각인 역할〉

서울시는 수도서울의 이미지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와 직결된다고 보고, 「서울시 G20 종합 지원계획」을 통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매력있는 디자인도시 ▲친절한 선진도시 ▲깨끗한 녹색도시라는 3대 도시브랜드를 세계인에게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이란 도시의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역량이 해외에 저평가돼온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을 알리고 도시 브랜드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것.

서울시는 이번 회의가 서울과 대한민국에 ▲투자 및 관광객 유치 ▲국가 위상 강화 ▲일자리 및 산업경제가치 창출 기회를 견인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시는 단군 이래 치러지는 이번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신흥경제국’에서 ‘완전한 선진국의 일원’으로 각인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모든 행정역량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브랜딩 하고자하는 서울의 비전을 ‘자연환경과 역사전통, 첨단IT가 어우러진 디자인도시’로 제시했다.

즉, 시는 세계에 브랜드마케팅 할 디자인서울의 핵심 자산과 이미지를 ▲자연환경이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되는 도시 ▲600년 역사로부터 나오는 문화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첨단산업의 세 가지로 정했다.

〈‘디자인 서울’ 역점 세일즈 포인트로 정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견인〉

특히 시는 역점을 둘 세일즈 포인트를 ‘디자인 서울’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전방위 홍보에 나선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도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는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상품의 브랜드가치를 상당부분 결정짓는 만큼 ‘디자인도시’를 가장 비중 있는 일자리창출 전략이자 경제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오세훈 시장도 이날 “서울이 명실상부한 디자인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 디자인 창의도시’ 국제인증 모든 홍보물에 활용〉

디자인도시를 브랜딩함에 있어 시는 ‘유네스코 세계 디자인 창의도시’, ‘세계디자인수도 2010’이라는 국제적 인증을 소중한 스토리텔링 아이템으로 활용, 서울에 대한 긍금증과 호기심으로 직결시킨다는 전략이다.

지난 몇 년간 서울시가 스스로 디자인도시를 외쳐왔다면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 디자인 창의도시’, ‘세계디자인수도 2010’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 디자인도시 브랜드를 각인시키겠다는 것.

서울시는 안내 대기 통화음, 자원봉사자 유니폼, 각종 G20 서울 홍보물 등에 유네스코 창의 디자인도시 로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국제적 인증을 받은 창의디자인 도시라는 서울만의 고유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킬 예정이다.

도시브랜드마케팅 : 1만 명 외국인들의 서울 매력 체험 돕는데 역점

서울시는 이러한 도시브랜드마케팅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언론인 대상 프레스투어 ▲대상별 체험코스 운영 ▲참가자 숙소에 고품격 종합안내센터 「Seoul①Center」 설치 ▲서울 비전 영상관 운영 등을 정하고, 서울을 동시에 찾는 1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도시를 알고, 체험하고, 매력적인 인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한다.

〈프레스투어 : 2천여 세계 각국 기자들 대상으로 3일간 12개 코스 운영〉

우선 언론인 대상 프레스투어는 서울의 매력과 도시정책을 알릴 수 있는 일관된 홍보테마를

디자인·IT 등 테마별 코스 6개, 체험 및 견학 코스 6개 등, 각 테마별 컨셉에 맞는 총 12개 코스를 구성해 11월9일(화)부터 11일(목)까지 3일간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세계 각국 언론인들이 서울을 직접 보고 체험, 전 세계 언론보도를 통해 생생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프레스투어를 신청한 기자는 67개국의 외신기자 863명과 국내 108개 매체의 1,157명 등 총 2,020명이다.

○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세계 340개 외신사 및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 서울투어를 안내하고 접수를 받았다.

코스는 한강과 20개 지천, 남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자연환경, 600년 전통의 역사문화 발전된 테크놀로지, 디자인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문화관광마케팅 포인트로 구성됐다.

기자들은 희망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코스별로 1일 최대 오전3회, 오후3회 총6회가 운영된다. 소요시간은 2~4시간 이내.

※ 프레스투어 테마코스(4시간 소요 / 오전 3회, 오후 3회) : 별첨

<맞춤형 서울투어 : G20 참가자 및 Business Summit CEO·배우자 대상>

아울러 서울시는 G20 정상회의 참가자,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 CEO로 구성된 Business Summit 참가자 및 배우자, 일반 수행원 등이 서울이란 도시를 가볼만한 도시로 추천하고 입소문낼 수 있도록 숙소와 연계한 ‘주·야간 서울체험 투어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는 흥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눈길을 끈다.

예를 들어 Business Summit 배우자 투어는 11월11일 ‘한국 옛 여인들의 아름다움’이란 컨셉 아래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코리어나화장품박물관, 이영희한복, N서울타워 등을 돌아보며 우리 옛 여인들의 전통문화, 생활용품 등을 둘러보게 된다. 그 밖에 Business Summit 참가 CEO와 배우자가 함께하는 서울동반투어는 11월 12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 G20 일반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셔틀투어’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 오전 8시에 출발하는 3개 코스, 오후 13시에 출발하는 3개 코스, 20시에 출발하는 5개 코스 등 총 11개 코스가 준비돼 있다.

※ 오전오후 야간투어 표 : 별첨

<참가자 숙소 30여개소에 「Seoul①Center」 설치, 고품격 종합안내서비스>

참가자들이 머무는 특급호텔 등 30개 숙소에 설치되는 「Seoul①Center」는 120다산콜센터와 연계 운영, 외국인들의 서울 체류부터 서울관광·교통정보, 의료지원까지 고품격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를 보조하기 위한 서울투어가이드북, 서울투어가이드맵, 테마별 서울 홍보자료 등을 제작 배포한다.

11월9일 부터 13일까지 5일간 운영되며 호텔별로 3~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외국어가 가능하며, 부족한 부분은 120다산콜센터 3자 통역시스템이 보장한다.

<행사장에 '서울비전 4D영상관' 운영, 서울의 미래모습 한눈에 보고 느낀다>

G20참가자들이 남산과 청계천, DDP 등 서울을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들을 접근성 좋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11월8일(월)~13일(토) G20 정상회의 메인 행사장 남문(동측편, 피라미드광장 옆)에 '서울비전 4D영상관' 도 운영한다.

'서울비전 4D영상관'에선 남산, DDP, 청계천·광화문, 신청사, 플로팅아일랜드, DMC, 용산 등 서울의 모습을 시뮬레이터와 LED스크린, 4D·2D영상물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다.

우리의 국가발전 핵심역량인 첨단IT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선 U-쉼터 기능이 있는 정상 숙소 주변의 첨단 유비쿼터스 버스정류장12개소를 활용하기로 했다.

친절한 도시 : 20개 단체 민관협의회+6천여 자원봉사단+시민참여

서울시는 이미 6개 분야 20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 G20민관파트너십 협의회>, <G20 서울시 자원봉사단> 등을 구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친절한 도시' 만들기에 들어갔다.

<G20 민관파트너십 협의회>는 서울시와 정부, 경제, 시민단체, 교육기관, 관광·의료협회, 외국인지원단체 등 6개 분야 20개 단체들이 구성한 민관협의체로서, 지난 9월 16일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참여단체 리스트 별첨)

- 사업슬로건 : "내가 바로 서울이다"
- 민관파트너십 홈페이지 : www.imseoul.or.kr
- G20 친절미소운동 : 친절서명·친절 메시지 쓰기, 친절배려 메시지전하기, 친절배지달기, G20 문화알기, 서울시홍보대사 친절서명릴레이 등
 - 지하철 모서리 광고('10. 10.7~11.13), G20 시민참여 홍보동영상 제작 활용
 - 대기업·은행 홈페이지·인트라넷, 은행 창구직원 친절배치 부착, 학교교육프로그램 포함용
 - 무가지 기획기사, 대학신문특집기사, tbs공동캠페인(친절문자메시지 보내기 등)
- 글로벌시민의식제고 : 일반시민 중 글로벌시민 발굴하여 알리기
 - G20 민관파트너십 런칭 인물 6인 스토리 방송(10월2일~10월8일)
 - G20 KBS 연중기획 공익캠페인(패적한국) 1분 방송으로 1일 5회 방송
- 승용차줄이기 운동 : 기업체 출근시차제 운영, 시민단체 공동캠페인 등
 - 파트너십 단체별 승용차 줄이기 참여방안 발굴 ⇒ 20개 단체 동시 보도자료 배포
 - 출퇴근 시차제, 연가 사용 권장, 주차장 이용제한 또는 폐쇄, 대중교통이용 홍보 등
 - 시민단체 중심 캠페인 ⇒ 기업체(임·직원) 참여 독려 ⇒ 일반시민 확산 홍보
 - 특히 녹색어머니회 등 기존 가두 교통캠페인 실시 단체 참여 강화

<G20 민관파트너십 협의회> 참여단체들은 ▲친절미소운동 ▲글로벌시민의식 제고사업 ▲정상회의기간 중 승용차 줄이기 등 G20 성공을 위해 시민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G20 서울시 자원봉사단>은 G20기간 중 교통, 숙소, 관광, 행정지원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에서 활동할 약 6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됐으며, 현재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중에 있다.

이들은 각 분야별 세부 직무교육 이후 후 현장에 배치된다. 오는 10월 31일 14시 서울광장에서 자원봉사 발대식을 갖고, 이후 모의근무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 활동역량 강화에 들어간다.

자원봉사자들은 숙소, 지하철역, 주요관광지, G20 투어 운영 등 분야에 주로 근무하며 G20 참가자들에게 서울안내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도보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행사장·숙소 인근 관광지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숙소·지하철·관광지 근무 자원봉사자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봉사자 동행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친절·환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역할(직무)	배치지점
참가자 이동 및 교통 안내	지하철역(행사장·숙소인근, 문화관광지 연계, 주요교통결절점), 공항, 셔틀버스, 주차장, 행사장 주변 이동로 등
문화관광 안내	외신 및 참가자 투어, 문화관광명소, 공연 및 행사장 등
G20 참가자 숙소 내 안내	G20 참가자 호텔 안내데스크 운영지원, 교통·관광 안내 등
행정지원 및 유관기관 지원	G20 종합상황실 및 콜센터, 등록처/홍보부스, B-서밋 등

이들은 1인당 2~3일씩 근무하게 되며, ID카드를 소지한다. 또 서울시가 제작한 자원봉사자 복장을 착용한다. 점퍼스타일의 복장 가슴 쪽에는 청사초롱 무늬가, 등 쪽에는 유네스코 디자인창의도시 서울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몇 년간 외국인 투자 및 거주 환경 개선에 각별히 신경을 써온데 이어 이번 기회에 세계인들의 뇌리에 서울을 친절한 도시, 배려하는 선진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선 미소와 친절이 만국 공통언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실천을 당부했다.

교통·안전·숙박·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마무리 단계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진행해온 교통·안전(식품·소방·테러 등)·숙박·의료 서비스 준비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1)교통대책의 경우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울 기본 인프라인 외국어 안내 표기오류 전반을 점검·개선하는 한편, 지하철 외국어 안내방송을 확대했다.

시는 도로안내표지판 113개소와 보행안내표지판 331건의 외국어 표기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지하철 외국어 안내방송을 중국어(현 31역)와 일본어(현 19역) 각각 50개역씩 확대했다. 또 외국인 관광택시도 265대(09.12현재)에서 330대까지 수를 늘렸다.

또 행사기간 중 메인행사 근처인 삼성역~선릉역~종합운동장 구간을 순환하는 셔틀 전기버스를 운행, 서울의 최첨단 친환경 교통 환경을 외국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고, 이동편의까지 높이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3천원 충전된 '대중교통 체험카드' 1만매 제작, 외국인들에게 제공>

아울러 시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해외도시들이 앞 다투어 배워가고 있는 서울의 첨단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천원이 충전돼 있는 '대중교통 체험카드' 1만매(디자인2종 각 5천매)를 제작, 제공한다.

<11/11~12 '승용차 없는 날',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이해 당부>

서울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엔 “깨끗한 도시”로 손님들을 맞이 위한 도시환경정비를 마무리하는 한편, 정상회의 기간 시민들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승용차

없는 날(11.11~12)’ 운영을 비롯한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없는 날 집중홍보를 위해서는 포스터와 프랭카드, 입간판, 자치구 소식지, 도로전광표지판 교통방송 등을 활용한다.

시는 이 밖에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수송능력 증대, 시내버스 우회운행 및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교통분야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자발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정체 및 행사장 통제 등 G20 행사개최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G20 성공개최를 위해 불가피한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는 교통문제와 함께 G20 성공개최를 좌우할 서울의 2)안전대책도 역점을 두고 있다. 시는 의료, 식품, 소방, 방역 및 생물테러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 경호안전통제단 및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의료지원 : 숙소 및 행사장주변 구급병원 현황을 파악해, 의무인력(의사·간호사 등 48명) 및 구급차량을 확보하고 현장 진료반을 구성
- 식품안전대책 : 숙소 및 행사장 주변 뿐 아니라 남대문시장·인사동·명동, 고궁 주변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소의 외국인 편의제공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 중
- 소방안전 및 테러대책 : 3차에 걸쳐 행사관련시설 4,784개소를 점검하고 주요 행사장 합동소방훈련을 5회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숙소·공항·행사장 등 14개소에서 테러·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할 예정
- 방역 및 생물테러 대책 : 행사장 주변 방역소독 실시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강화된 생물테러 대응 의료기관』을 운영(10.10.1~11.30), 서울대병원 등 54개 의료기관을 통한 응급실 감시 및 감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숙박 전담자 지정, G20참가자 및 기자단의 예약과 신속대응 지원>

3)숙박지원의 경우 특급 및 1급 호텔 75개소, 외국대사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고 숙박 전담자를 지정해 G20 참가자와 기자단의 예약과 신속 대응을 돕는다.

4)도시환경정비의 경우 도로·가로등 정비 및 녹지확충 등 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행사장 주변 환경개선, 전선지중화 등 현재 시행 중인 구간도 10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행사장 및 주요 이동로에 행사기간에 맞추어 꽃길을 조성, 세심한 아름다움까지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사 전엔 반복적인 대청소로 깨끗한 도시환경만들기에 중점을 두어, 청정한 도시 표정으로 손님을 맞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11월 1일에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가을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11월1일~14일 2주간을 ‘특별 청소주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또 메인행사장 주변 악취 저감대책으로 주변 하수도준설, 악취 차단장치 설치 등도 15일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한편,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 미치는 경제 가치를 계량화한 자료에 따르면 회의개최의 직접적 파급효과는 약 5억 달러 이상,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조원으로 추정되며 국가 전체로

불 때 직 ▲간접적 효과는 약 21조~24조에 이른다.

- 총 경제적 파급효과 : 약 2조원 추정(시정연, '10. 2월)
※ 총 경제적 파급효과 = 직접적 경제적 파급효과 + 고용창출효과
- 국가 전체적으로는 직·간접효과가 약 21조 ~24조여 원
※ 계량화 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는 별도임 (* 삼성경제연구소, 2010. 9. 15)

(서울특별시, 담당: 행정국 G20정상회의지원단(02-2171-2085) | 등록일 : 2010.10.21)

[서울특별시] 서울시, 「장애인이 행복한 문화관광체험코스」 10곳 선정

- 장애인수 크게 증가(8.64%)하나 관광정보 부족, 실질적 도움주기 위해 마련
- 동물체험과 학습효과 기대할 수 있는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코스
- 한강레저 등 체험코스과 여성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특화코스
- 명동-동대문시장 등 역사, 쇼핑 접목한 2박3일 일정의 외국장애인코스
- 대중교통, 화장실, 경사로 등 편의시설과 15개 시범코스 장애인 직접 점검
- 어플개발, 관광안내책자 및 안내지도 발간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정보 제공

서울시가 「장애인이 행복한 문화관광체험코스」 10곳을 선정, 22일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선정한 서울시의 「장애인 맞춤 관광프로그램」은 장애인수가 크게 증가하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관광에 대한 인프라와 정보가 부족해 여행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관광지 편의시설정보, 주변 맛집, 대중교통 및 이동코스 안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장애인수는 평균 8.6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발표 등록장애인수, '09.12)

이번 관광코스는 ▲1박2일 코스 ▲체험코스 ▲여성장애인 특화코스 ▲외국장애인 코스 등 대상별, 특징별로 구성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동물체험과 학습효과 기대할 수 있는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코스>

먼저, 장애아동·청소년 등 장애가족을 위해서는 ‘해저생물-동물원-전쟁기념관-국립중앙박물관’ 등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동물체험과 더불어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

또 1박2일 코스로 ▲경복궁-광화문광장-유람선-서울N타워-서울대공원-국립현대미술관 코스와 ▲선유도-한강유람선-북서울꿈의 숲-창덕궁-고궁박물관-광화문광장-청계천 코스가 있다.

<한강레저 등 체험코스과 여성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특화코스>

그동안 눈으로만 감상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전통문화, 한강레저, 문화예술공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스도 있다.

이는 시범투어에서도 장애인들이 가장 만족했던 코스로 ▲경복궁- 북촌한옥마을-인사동을

있는 전통문화코스 ▲선유도-한강공원- 한강유람선의 한강레저코스 ▲시립미술관-덕수궁-정동극장(미소 관람)의 문화예술공연체험코스가 있다.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N서울타워 - 한강유람선 - 홍대 비보이공연’ 으로 이어지는 특화코스가 있다.

시범투어결과 ‘홍대 비보이공연’ 은 여성장애인들이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특히 여성장애인들에게 부족한 문화적 욕구 충족에 부합하는 코스임을 알 수 있었다.

<명동-동대문시장 등 역사, 쇼핑 접목한 2박 3일 일정의 외국장애인코스>

외국장애인을 위해서는 2박 3일 일정의 코스를 선정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은 일본,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역사와 쇼핑을 접목한 코스로 ▲명동 - 남산 - 인사동 - 동대문시장 코스와 ▲청와대(사랑채)- 인사동-코엑스-명동 코스가 있다.

또한 과거 외국장애인 관광객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화장실 이용 및 보조기구 대여기관 부재 등으로 서울관광을 꺼리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시범투어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지하철,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편리하고 쾌적한 관광지의 편의시설 정비가 인상적이었다” 는 소감을 밝히는 등 서울시의 복지관광을 위한 노력을 해외 관광객들에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대중교통, 화장실, 경사로 등 편의시설과 15개 시범코스 장애인 직접 점검>

이번 문화관광체험코스는 특히 이용객이 될 장애인들이 직접 관광지의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와 이들의 문화욕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인 곳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이 가보고 싶은 관광명소 50곳을 사전 조사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휠체어 포함)등과 함께 지난 3월 말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의 편의시설을 함께 점검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총11회, 국내외장애인 118명이 참가한 시범투어를 실시했다.

편의시설 점검은 관광지 접근을 위한 대중교통 및 이동코스, 관광지 주변 맛집, 숙박시설, 문화시설, 화장실, 관광지 주변 정보조사 등을 현장방문 조사하고, 호텔 46곳에 대한 장애인들의 사전참여체험도 진행했다.

<조사대상 현황>

구분	총계	고궁	거리	공원	전통시장	광장	문화공간	박물관	종교시설	호텔(1급 이상)
개수	50	6	10	11	3	2	13	3	2	46

시범투어에는 장애아동·청소년, 지체, 시각, 청각등 유형별 장애인, 여성장애인, 일본·중국 장애인 관광객 등 국내외장애인 118명이 총 15개 시범코스에 참가했다.

이후 장애인여행업계, 장애인당사자(휠체어 여행작가), 관광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15개 시범코스 평가 및 시범투어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

에 10개 코스를 최종 선정했다.

〈어플개발, 관광안내책자 및 안내지도 발간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정보 제공〉

서울시는 앞으로 장애인관광 DB를 구축하고, 장애인 누구나 손쉽게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플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또 관광안내책자 및 안내지도를 발간하여 장애인과 시민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광지 접근성 제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음식점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장애인 문화관광 체험·맞춤코스(10개)

구분	코스 테마(유형)	문화관광 체험·맞춤관광코스
제 1 코스	장애이동가족	• 코엑스(아쿠아리움) - 어린이대공원(동물원)
제 2 코스	장애청소년을 위한 박물관투어	• 전쟁기념관 - 국립중앙박물관
제 3 코스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코스	• N서울타워 - 유람선 - 홍대 비보이 공연
제 4 코스	전통문화체험	• 경복궁 - 북촌한옥마을 - 인사동
제 5 코스	한강레저체험	• 선유도 - 한강공원 - 한강유람선
제 6 코스	문화예술공연체험	• 시립미술관 - 덕수궁 - 정동극장(미소 관람)
제 7 코스	외국장애인을 위한 코스 1 (2박 3일)	• 1일 : 삼청동 - 북촌한옥마을 - 인사동 • 2일 : 창계천 - 광화문광장 - 정동극장(난타 관람) - 명동 - N서울타워 • 3일 : 민속박물관 - 경복궁 - 동대문시장
제 8 코스	외국장애인을 위한 코스 2 (2박 3일)	• 1일 : 청와대(사령채) - 경복궁 - 인사동 • 2일 : 광화문광장 - 한강유람선 - 코엑스 - 명동
제 9 코스	장애인가족을 위한 1박 2일	• 1일 : 경복궁 - 광화문광장 - 유람선 - N서울타워 • 2일 : 서울대공원 - 국립현대미술관
제 10 코스	장애청소년을 위한 1박 2일	• 1일 : 선유도 - 한강유람선 - 북서울꿈의 숲 • 2일 : 창덕궁 - 고궁박물관 - 광화문광장 - 창계천

※ 외국 장애인 관광객 시범투어 소감

- ❖ 다카하시(남, 32, 일본휠체어장애인)씨는 “**N서울타워에서 일본의 장애인수첩이 동용되어 할인제도가 적용되어 놀랐음. 예전보다 횡단보도가 많아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었고, 거리 개선에 의욕적이라는 실감**” 했다.
- ❖ 아라이(여, 55, 일본휠체어장애인) 씨는 “**많은 시설을 휠체어로 관광할 수 있었고, 지하철 내부가 넓어서 휠체어 장애인에게 감사하고, 지하철 승차차량의 단차가 없어서 일본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
- ❖ 류우상웨이(남, 21, 중국지체장애인)씨는 “**광화문광장은 중국어 음성안내도 되고 편의시설도 훌륭해, 특히 이순신장군 이야기를 4D로 체험했는데 재미있어**”
- ❖ 거사오츄(남, 52, 중국휠체어장애인)씨는 “**참외대 사랑채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시관이었음. 대통령집무실 등 재미난 체험프로그램이 많고 장애인 화장실도 정말 잘 되어 있다**”

붙 임 2

국내외장애인 시범투어 사진자료



(서울특별시, 담당: 장애인복지과 전양례(02-3707-8477) | 등록일 : 2010.10.22)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수욕장에 해외관광객이 몰려온다!!!

- 10.21~10.23 3일간 개최되는 부산세계불꽃축제가 부산 최대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아

- 해외관광객도 5배 이상 증가한 7,000여명 유치, 단일 관광 상품으로는 역대 최다 해외관광객 방문 상품

대한민국 최대·최고 불꽃의 향연이자 명품 축제인 ‘제6회 부산세계불꽃축제(10.21~10.23)’ 관람을 위해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7,000여명의 해외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불꽃축제 1일 행사에 1,400여명의 일본관광객을 모객한데 이어, 올해에도 ‘부산세계불꽃축제’를 관광 상품화하여 축제 기간동안 7,000여명의 해외관광객을 부산으로 유치한다는 목표로 부산시 자체마케팅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협력하여 일본 및 중화권 지역 타겟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다.

또, 일본(동경·오사카·후쿠오카 등)과 중국(북경·광주·상해 등) 현지 언론을 통한 상품 광고 및 세일즈 마케팅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과 더불어, 행사기간도 3일로 확대한 결과 해외관광객이 5배 이상 급증한 7,000여명(일본 5,500여명, 중화권 지역 1,500여명)을 유치, 단일 관광 상품으로는 역대 최다 해외관광객 방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일본지역 대형 모객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세일즈콜 및 초청 팸투어 등을 실시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연계하여 중화권 지역 메이저급 여행사 대상 마케팅 및 모객상품 직접광고,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과 공동특별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더욱 폭넓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부산세계불꽃축제는 처음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모객에 성공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일본의 메이저급 여행사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해외 FIT(자유여행/Free Independent Tourism) 여행자를 위해 온라인 참가신청도 접수받는 등 부산을 찾는 해외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부산세계불꽃축제 행사를 통해 부산 방문 외국인에게 최고의 감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재방문과 추천을 유도해 외국인 관광객 2백만 시대를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담당: 관광진흥과 이진화(051-888-8224) | 등록일 : 2010.10.20)

[울산광역시] 태화강 대공원 ‘나비 생태원’ 조성 완료

- 대숲 산책로 입구 1,000㎡ ... 내년 4월부터 나비 관찰 가능

태화강대공원 내 자연형 ‘나비 생태원’이 조성됐다.

울산시는 현대자동차(주)가 사회공헌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화강 대공원 대숲 산책로 입구에 1,000㎡ 규모의 자연형 ‘나비 생태원’ 조성사업을 지난 7월 30일 착공, 10월 1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설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 나비의 변태 과정이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나비 종류별

‘생태 안내관’ (3개)이 설치되었고, 생태 관찰로와 덩굴성 나비의 먹이식물이 타고 오를 수 있는 대형의 원형돔 구조물(4동)이 설치됐다.

부대시설로는 수생식물이 식재된 수반, 대형의 원형 파고라와 게이트 파고라, 목교 등이 설치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비생태원 내부에는 4종류의 나비가 자연적 환경조건에서 서식 할 수 있도록 쥐방울 덩굴을 비롯한 후박나무, 산초나무, 황벽나무, 탕자나무 등 7천여주의 나비 애벌레 먹이식물이 식재되었다.

나비 생태원에는 울산시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복원에 성공한 ‘꼬리명주나비’를 비롯, 울주군 방도리 목도의 상록수림에서만 극소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띠제비나비’ 그리고 ‘사향제비나비, 호랑나비 등 4종류의 나비가 자연적 환경 조건에서 서식하게 된다.

울산시는 내년 봄에 나비의 개체 입식이 최종 완료되면 태화강 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자연 상태에서 서식지 주변을 날아다니는 수백마리의 나비 떼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담당: 공보관실 손은주 | 등록일 : 2010.10.18)

[경기도] 경기도, 日 가나가와현, 中 랴오닝성과 3지역 우호교류회의 개최

- 김 지사, 3지역간 환황해 경제권 형성에 대한 공동연구 제안

- 일본 가나가와현과는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도 가져

자매결연 관계인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의 랴오닝성이 10월 21일 오후 3시 20분부터 수원에서 3지역 우호교류회의를 가졌다.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3지역의 상호 이해와 유대를 바탕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상호간 우호증진과 공동발전,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1996년부터 개최됐다.

이번 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3지역 지역발전전략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3지역 지도자의 기조연설과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경기도는 이번 우호교류회의가 3지역간의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 도출과 동북아 지방정부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3지역 우호교류회의가 지역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각국의 국가발전전략을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3지역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과 환황해 경제권 형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고, 아울러 북한 지방정부의 3지역 우호교류회의 참여에 대한 희망도 밝혔다.

마츠자와 시게후미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3지역 우호교류회의의 구체적 성과로 전문가 ‘학술포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스포츠교류’ 등을 예로 들며 3지역 우호교류회의가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되는 매우 선진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회의의 제안사항으로 3지역간 관광분야의 교류 강화와 인

재육성을 위한 ‘국제 스칼라십’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랴오닝성 천정카오 성장은 기초연설에서 3지역 우호교류회의가 이미 동북아 지역교류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경제, 문화, 교육, 위생, 과학기술, 환경, 농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3지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관련 산업과 기술에서 앞선 두 지역의 노하우와 선진기술 도입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기업 투자확대 등 경제교류 강화, 정부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3지역 정부 부서간 ‘핫라인’ 개설을 제안하였다.

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21일 저녁 김문수 경기도지사 주최 환영만찬을 끝으로 막을 내리며 2년 후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제9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한편 3지역 우호교류 행사에 앞선 21일 오후 2시에 경기도와 가나가와현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가 경기도청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지난 1990년 4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올해로 20주년을 맞게 되었으며 그 동안의 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20주년 기념행사에는 양 지역 지도자간 공동선언문 발표와 기념식수, 기념식수 표지석 제막 등의 행사로 치러졌다.

지난 10월 16일 ~ 17일에는 가나가와현 민단, 가나가와현청 및 주요코하마총영사관 공동주최로 요코하마시 미츠이케공원에서 가나가와현민, 재일동포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나가와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는 “Korea 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경기도에서 파견된 예술단이 경기민요 및 도자기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11월말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답방 형태로 일본방문과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자매결연 20주년 공동선언에서 지난 20년간 경제, 관광,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특히, 청소년 문화·체육 교류를 통한 양 지역간 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청소년 교류 등 지속가능한 교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간 존경과 우호관계가 영원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경기도, 담당: 교류통상과 (032-8008-2760) | 등록일 : 2010.10.21)

[경기도] 평택항 유럽투자 유치 본격화

- 유럽 3개국 방문 투자환경설명회
- 관계기관 평택항 경쟁력 적극 홍보

환황해 물류중심항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항에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나섰다.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서정호)는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과 함께 24일부터 6일간 유럽 3개국을 방문해 투자환경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번 IR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벨기에 브뤼셀, 지브루게, 영국 런던에서 평택항 개발현황 및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평택항에 관심이 큰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비롯해 항만 부두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서정호 사장은 “유럽지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화물처리 실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집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평택항과 상호협력 관계인 벨기에 지브루게항과의 우호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양항만간 물동량 증대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항과 지난해 5월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지브루게항은 근해 무역에서 영국과 아일랜드 시장의 중요한 연결항만으로 영국 동부, 스칸디나비아와 북쪽으로 발트해, 포르투갈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환적항이다.

(경기도, 담당: 평택항만공사(032-686-0675) | 등록일 : 2010.10.24)

[충청북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결과 공식 발표

- 성공적행사와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 도정 실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가 지난 16일 성공적으로 끝난 엑스포 행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

조직위는 발표를 통해 엑스포 총 관람객수는 당초 목표 105만명 대비 30%를 초과 달성한 1,360,218명이며 이중 유료 관람객은 682,716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50.2%, 무료 관람객은 677,502명으로 49.8%를 차지 하였다.

외국인 관람객은 유·무료를 합해 50,897명이며 단체관람은 1,982단체, 182,268명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무료관람객 입장현황은 기초수급자가 전체 무료입장객중 24.5%를 차지한 165,988명이며 국가유공자가 22.5%인 152,43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동반자포함),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입장객이 487,802명에 달해 성공적인 행사와 더불어 민선5기 ‘함께하는 충북’ 의 도정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장이 된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수입액은 6,528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9.4%를 거두었으며 이중 입장권 판매수익은 4,839백만원, 시설임대는 324백만원이며

특히 휘장사업수익은 1,365백만원으로 당초 목표액(910백만원)대비 150%를 수익을 거두었다
조직위는 연말까지 성과평가 실시와 백서 제작, 사후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며 엑스포장 시설 철거는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 담당: 공보관실(043-220-2076) | 등록일 : 2010.10.25)

[충청남도] 2010세계대백제전, 경제적 파급효과 2,399억원

- 관람객 369만 방문, 119억원 수입 발생
- 2011, 제57회 백제문화제 10월 7일부터 10일간 개최

“2010세계대백제전”이 369만8천명의 관람객과 2,39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119억원의 수입을 거두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이준원 공주시장, 이용우 부여군수, 최석원 조직위원장은 18일 “2010 세계대백제전”은 전세계 2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수상공연 “사마이야기” 등 총9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찬란한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역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17년간의 대역사를 마무리한 백제문화단지과 백제유적 그리고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일본 등 해외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려 관광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경제수익기반을 조성한 성과를 거두고 이로 인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청소, 교통질서 유지 등 읍지에서 묵묵히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친절함 손님맞이에 앞장서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큰 요인이었으며,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성공을 거둔 웅진성퍼레이드와 황산별전투, 기지시 줄다리기등 주민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둘째, 훌륭한 인프라와 역사에 기초한 프로그램 운영: 백제문화단지, 수상공연장등 우수한 인프라와 백제역사에 기초한 “수상공연” “사비의꽃” “마당극 미마지” 등의 프로그램과 해상강국과 구국의 백제정신을 나타낸 “퍼레이드 교류왕국” “황산별 전투재현” 등 우수 프로그램,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은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등 종사자들의 열정을 꼽을 수 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2011년 제57회 백제문화제는 10월초 10일간 공주시와 부여군을 중심으로 동시개최하고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적인 백제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학술회의와 백제문화 콘텐츠 및 문화상품의 개발과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세계 제1의 명품역사문화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담당: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 강재규(041-837-6958) | 등록일 : 2010.10.18)

[전라북도] 「해안경관마을 시범사업」 공모선정

- 부안 공항 해안마을 경관형성 조성사업 공모 최종선정
- 총 사업비 45억원, 사업기간 ‘10~13(4년간),’ 10년도 2억원

동서남해안의 초광역적인 연계와 해안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활용차원에서 해안마을경관형성 조성 시범사업을 시장. 군수로부터 2010. 7. 26까지 공모신청(전국 17개 마을)으로 궁항마을이 최종선정 되었다.

주요 선정여건은 해안마을경관형성 시범사업은 해안선으로부터 1km 보도권 안에 위치하고 300세대 이내의 가옥이 군집한 마을로 수려한 경관이나 역사문화경관을 가지고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대효과가 큰 마을로 금년도에 전국 5개 마을(전북, 인천, 울산, 전남, 경북)을

선정하였으며 사업규모는 개소당 45억원으로 국비 50%, 군비50%이고, 사업기간은 2010 ~ 2013(4년간)으로 국비는 중앙 광특 사업비 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부안군 공항마을 65ha, 59세대, 179명의 해안마을에 주거공간 리모델링으로 마을안길 담장정비, 공항마을옛길조성, 큰커뮤니티센터, 진입로경관정비, 안내판정비와 해안. 산림공간정비로 해안선복원 및 마을녹지شط터조성, 비보림. 차폐림조성, 조망공원정비, 경관 컨설팅으로 공항마을마스터플랜 수립, 경관관리 가이드설정,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1차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수립 후 해안경관마을 시범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전라북도, 담당: 해양수산과 어촌육성 강양원(063-280-4645) | 등록일 : 2010.10.20)

[전라남도] F1경주도 관람하고 골프도 즐기세요

-전남도, 골프장·골프텔 10~20% 파격 할인상품 운영

전라남도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기간중 ‘F1 관계자 및 관람객에게 골프장·골프텔이용 시 파격적인 할인상품’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26개 골프장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영암에서 열리는 F1대회 기간동안 대회 관람객과 관계자들이 관계자증이나 티켓을 지참하고 골프장을 방문하면 그린피 및 골프텔 이용료 등을 10~2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올들어 10월 현재까지 전남지역 골프장을 찾은 골프 관광객은 1억8천200만명으로 홀당 이용객 수는 3천821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6%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남도를 찾는 골프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도내 골프장이 천혜의 온화한 기후조건으로 겨울철에도 무제한 운동이 가능하고 차별화된 남도의 섬관광, 문화와 다양한 축제, 친환경 농수특산물과 맛깔나는 음식체험, 수도권 대비 저렴한 그린피 등으로 타 지역보다 매력적인 골프환경이 조성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남도만의 특색있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한옥 그늘집, 꽃과 함께 펼쳐진 필드, 국악이 흐르는 라운지 조성 등 친환경 골프 시설을 설치해 라운딩하는 골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한번 라운딩 했던 골퍼들이 다시 찾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정훈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F1대회 기간중 골프장·골프텔 할인상품 운영은 F1을 관람하는 국내외 모든 골퍼들에게 전남의 골프환경을 홍보하는 기회로 마련된 특별한 혜택”이라며 “F1경주도 관람하고 아름다운 필드에서 여유를 찾으며 남도에서 준비한 넉넉한 선물을 마음 편하게 받아보는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스포츠산업과(061-286-5530) | 등록일 : 2010.10.19)

[경상남도] 고려대장경, 대중과 소통을 시작하다

-간행 천년 국제학술심포지움...19~20일 창원컨벤션센터

-3개국 200여명 참가·4개 논문 발표 '가치 재발견' 기대

경상남도가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천년 고려대장경, 그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은 3개국 200여명이 참가해 고려대장경의 국제적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고려대장경 간행 천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이 19~20일 이틀간 3개국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년 고려대장경, 그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인 고려대장경이 간행된 지 1,000년이 되는 2011년 경상남도과 합천군, 해인사가 고려대장경 천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의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개최하는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성공 개최를 위한 사전 기원 행사다.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위원장 김두관 도지사)가 주최하고 경남발전연구원(원장 이은진)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학술심포지움은 경남도 서만근 행정부지사, 이은진 경남발전연구원장, 하창환 합천군수를 비롯해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한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허홍식 명예교수가 ‘고려불교와 고려대장경의 위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고려대장경의 가치, 동아시아 교류’, ‘고려대장경 대중과의 소통’ 등 2개 주제로 대장경 동아시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국제적 위치를 확인하고 대중화 확산을 위한 4개 논문이 발표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허홍식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고려불교와 고려대장경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특히 대장경은 기술과 내용, 그리고 보존면에서 출판문화를 첨단으로 발전시킨 기록유산” 이라면서 “천년 전 대장경은 전란을 불교를 통해 극복하려고 이룩한 사회통합의 상징이었다면 천 주년을 기억하는 이번 학술심포지움은 분단된 현실의 평화적인 극복과 불교의 보편성과 국제성을 통하여 번영을 염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고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박상국 원장은 ‘간행과 유통을 통해 본 고려대장경의 진면목’이라는 주제에서 “고려대장경의 우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국내의 대장경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고 지적한 뒤 “우선 대장경의 서지학적 정보를 분석·정리해 나가야한다” 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일본 교토대학 크리스티안 워턴교수는 ‘동아시아 디지털 대장경 제작을 위한 제언’에서 인류 공동 유산인 고려대장경을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그대로 보존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장경의 디지털화를 주창하고 그동안 연구내용을 발표한다.

한성대학 강순애 교수는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 및 제경판의 디지털화와 대중화’라는 주제를 통해 팔만대장경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팔만대장경 경판·판전·판각에 대한 DB 구축, 장경판전 3D 영상 개발 등 국내 추진사업을 소개하고 이미 구축한 문화자원과 연계한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위원은 ‘전통적 종교유산에서 현대적 문화콘텐츠 활용가치 찾아내기’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자원인 대장경이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라는 메가 이벤트 속에서 콘텐츠화 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는 최초 고려대장경 전산화 추진과 미국 내 한국불교 연구 선도자인 미국 버클리대 루이스 랭카스터 명예교수, 한국불교사를 펴낸 일본 하나조노대학 나카지마시로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토론에 참여해 열띤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관계자는 “내년 9월 23~11월 6일 합천군 가야면 일원에서 열리는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에 대한 사전 홍보와 더불어 대장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마련했다”면서 “천년 전의 고려대장경이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시작으로 전 세계인에게 살아있는 지혜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담당: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이종하(054-211-6283) | 등록일 : 2010.10.18)

[해외동향][KOTRA] 영국의 황금알 낳는 거위 - 뮤지컬산업(1)

- 산업규모와 극장동향

□ 영국 뮤지컬산업 개요

○ 웨스트엔드란?

- 웨스트엔드는 세계 최대규모인 런던 극장 중심지를 일컫는 용어로 뉴욕 브로드웨이와 함께 극장산업지대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약 40 곳의 상업 대형극장들이 있음.

○ 웨스트엔드의 기원

- 1663년 최초 공연장이 런던 드러리 레인(Drury Lane)에 세워졌으나 화재로 인해 1672년 새로운 극장명 Theatre Royal로 재탄생함. 이 극장은 120년 동안 운영됐으며 이 시기에 지금의 로얄 오페라 하우스를 포함한 여러 극장들이 이 지역에 생겨나면서 웨스트엔드란 개념이 발전

□ 웨스트엔드 산업 경제효과

○ 극장 티켓판매 수익

- 2009년 런던 극장산업이 5년 연속 신기록을 세움. 1986년 이래로 가장 많은 관객 수 (1225만7922명)와 티켓판매 수익(5억476만5690파운드)으로 총 7517만7869파운드를 국가 부가가치세 자산에 공헌

○ 관광산업의 메카

- 2009년 영국에 방문한 외국 여행자 10명 중 1명이 극장쇼를 관람했고 28억 파운드를 창출

- 특히 런던 웨스트엔드가는 극장 관람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로 220만 명을 끌어들이며 총 19억 파운드 수익을 창출
- 웨스트엔드 극장은 영국 관광산업의 히든카드로 해외여행자들이 영국에 방문하는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49%의 방문자가 공연을 1일 전이나 당일 날 예약한다고 집계됐음.
- 극장 관람자 10명 중 7명꼴이 웨스트엔드 극장이 런던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50% 이상이 런던 관광산업 부흥의 핵심적인 장소라고 동의함.

○ 지역경제

- 2008년 극장을 방문할 때 소비하는 평균 지출은 118파운드로 지난 5년간 31파운드 이상 증가함. 극장 방문자의 69%가 티켓비용을 제외한 외식에 평균 29.09파운드, 22%가 숙박에 97.32파운드를 소비, 그 밖에 교통비 등을 지출해 지역경제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함.



주 : 1) 비소비자 제외 : 실제로 소비를 한 극장 관람객만을 조사
 2) 비소비자 포함 : 소비를 하지 않은 일반 극장 관람객 포함

자료원 : Ipsos MORI

□ 극장 운영체제

○ 웨스트엔드 상업극장과 공립극장 공연 구분

- 영국의 웨스트엔드 극장산업은 상업 공연과 비영리 공연이 뚜렷하게 구분됨. 현재 런던 시내 웨스트엔드 구역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극장은 약 40곳이며 국립극장, 로얄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바비칸센터 등 공립극장이 6곳이 있음.

○ 솔트 협회(the Society Of London Theatre)

- 런던 중심가에 대형 극장 제작자, 극장 소유자 그리고 매니저들을 대표하는 무역기관

으로 극장산업을 증진하기 위한 청중 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멤버들을 위한 산업 관계 및 법적 조언을 제공함.

○ 극장 운영

- 대부분의 웨스트엔드 극장들은 영국 대형 상업기관에 의해 운영되는데, 주로 앰버서더 씨어터 그룹(Ambassador Theatre Group), 뮤지컬의 대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의 리얼리 유스풀 그룹(Really Useful Group) 그리고 카메론 매킨토시(Cameron Mackintosh)의 델폰트 매킨토시 그룹(Delfont Mackintosh Group)이 있음.

- 1992년 하워드 팬터와 로즈메리 스콰이어가 공동으로 창시한 영국 최대 극장사업 회사로 영국에는 총 39곳의 공연장을 소유하며 국내외에서 성공적인 극장 제작을 수행함.

- 뮤지컬 캐츠, 에비타와 오페라의 유령 등의 명곡을 만들어낸 영국의 저명한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에 의해 창시된 국제회사로 극장, 영화, TV, 비디오 콘서트 제작 등 많은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 현재 7곳의 웨스트엔드 극장들을 소유함.

- 1991년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등의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 경과 베르나드 델폰트가 창시한 회사로 7곳의 런던 웨스트엔드 극장을 소유함.

- 1912년 다비드 T. 네덜란더가 창시한 미국 미시간 소재 회사로 미국의 라이브 극장과 음악산업의 대형 기업임.

- 미국 브로드웨이 극장가에 9곳의 공연장과 영국 웨스트엔드에 3곳의 공연장을 소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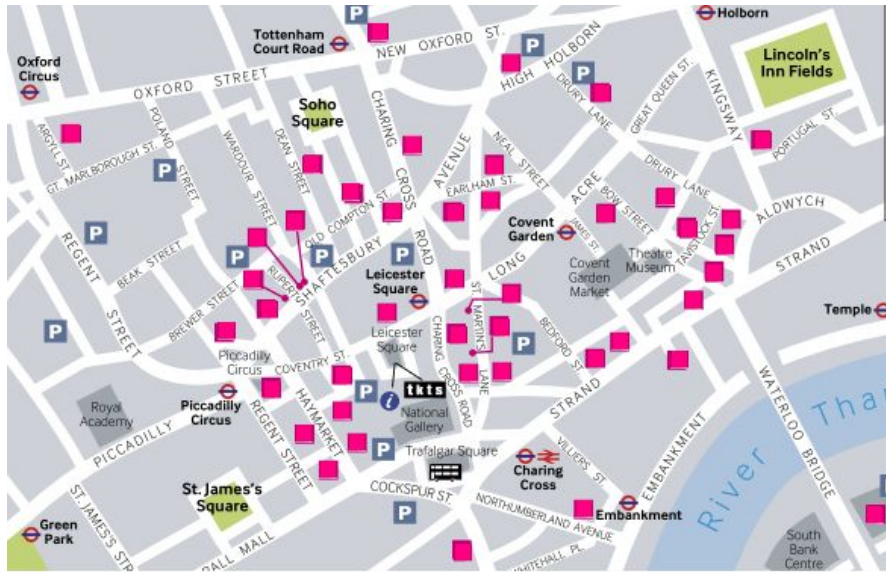
□ 런던 극장 규모와 분포

○ 극장 수와 좌석 수

- 2010년 기준 솔트협회에 가입된 멤버 총 51개(런던 웨스트엔드 지역뿐만 아니라 런던 전체 지역을 포함) 극장, 총 좌석 수는 1966만6766석으로 집계됨. 이 중 10곳(극장 내 공연장 수로 집계)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이 지원금은 영국 예술 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 지방 의회 그리고 공공자금 지원단체 등에서의 지원을 포함.

○ 분포 지역

- ‘씨어터랜드’ (Theatreland)는 웨스트민스터 카운실과 솔트협회에서 재브랜드화 시킨 용어로 런던의 주요 극장 중심지의 메카를 의미함. 런던 중심 심장부로 남쪽 스트랜드가(The Strand), 북쪽 옥스퍼드가(Oxford St), 서쪽 리젠트가(Regent St) 그리고 동쪽 킹스웨이(Kingsway)로 경계를 이룸.



자료원 : SOLT

□ 런던극장 연간 관객 수 및 수익

○ 2009년 런던 극장산업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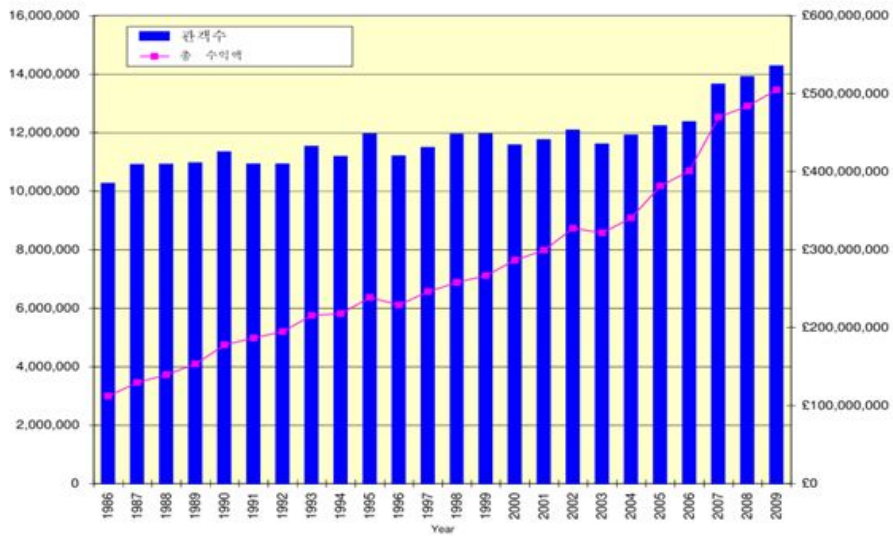
- 2009년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극장의 관객수, 공연 회수 그리고 판매 수용량이 전년대비 상승했고 상업극장 분야에서는 관객 수, 공연 회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판매 수용량이 약간 감소함.

<2008, 2009년 관객 수, 수익 & 공연 회수>

구분		2009	2008	%
관객 수	상업적 운영 극장	11,989,151	11,444,397	4.8
	정부 지원 극장	2,268,771	2,448,063	-7.3
연간 수익	상업적 운영 극장	£ 426,038,777	£ 398,869,893	6.8
	정부 지원 극장	£ 78,726,914	£ 84,479,530	-6.8
극장 오픈 수 (평균)	상업적 운영 극장	37	37	0
	정부 지원 극장	8	8	0
공연 회수	상업적 운영 극장	15,336	15,208	0.8
	정부 지원 극장	2,563	3,067	-16.4
판매가능 좌석수	상업적 운영 극장	16,847,302	16,777,194	0.4
	정부 지원 극장	2,819,464	2,961,220	-4.8
판매 수용률	상업적 운영 극장	71%	68%	3.0
	정부 지원 극장	80%	83%	-3.0

자료원 : 솔트협회

〈연간 평균 관객수 및 총 수익〉



자료원 : Iposos MORI

○ 런던극장 연간 관객 분석

- 2003년에서 2008년에 영국 극장 관객의 60% 이상이 여성이었던 반면 연령층 관객 점유율은 고루 분포됨.
- 인종별 관객 조사에서 백인(White)이 2008년 92%로 압도적인 수치를 유지했으며 관객의 10명 중 7명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것으로 조사

〈2003, 2008년 분류별 관객 점유율〉

분류 \ 연도		2008(%)	2003(%)
성별	남성	32	35
	여성	68	65
나이	16~24	16	16
	25~34	21	20
	35~44	16	18

자료원 : Iposos MORI

자료원 : SOLT, MORI 등 협회, 코트라 런던KBC 자체조사 종합

(KOTRA, 담당: 런던 KBC 김성주(sjkim@kotra.or.kr) | 등록일 : 2010.10. 20)

[해외동향][KOTRA] 영국의 황금알 낳는 거위 - 뮤지컬산업(2)

- 뮤지컬 제작 및 마케팅 방식 분석

□ 웨스트엔드 상업 뮤지컬의 제작 방식

○ 예산 조달

-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는 자금으로 공연 제작비를 충당함. 투자자를 방식은 프로듀서들마다 다르지만 대형 법률회사를 고용해 변호사나 회계사가 계약자가 돼 모든 절차 및 법적 책임을 대행함.

○ 투자자 유치 세부방식

- 투자 유치금 250만 파운드로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을 소액의 유니트(Unit)로 나누어 각 유니트를 유치하는 형식

- 1000유니트로 분배할 경우 각 투자자 당 평균 2500파운드씩 제안함.

- 총 1000유니트 중에서 60~70%가 유치되면 리허설을 시작할 수는 있으나, 최대한 투자금을 확보한 후 제작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

- 제작 일정이 다가오는데도 투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프로듀서가 나머지 금액을 충당해야 함. 이런 경우 프로듀서인 동시에 투자자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의 개인 돈을 공연예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철칙임.

- 투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유치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함.

○ 수익분배 방식

- 투자자들은 수익이 투자금 만큼, 즉 손익분기점에서 각각 원금 2500파운드씩 돌려받음.

-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의 수익분배는 프로듀서 40%, 투자자 60%로 하며 이것은 법적제한보다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관례임.

- 제작일정이 다가와도 투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프로듀서가 나머지 금액을 채우면서 동시에 투자자가 됨. 즉 수익의 40%를 프로듀서가, 60% 중 자신이 투자한 분만큼 추가로 수익을 가짐.

- 투자금이 전액 유치되기 이전에 미리 극장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

○ 제작비

- 제작비(Production cost)는 작품 개막 이전까지의 프리 프로덕션 예산에 한함.

- 프로듀서의 개인 예산서로 이 총계가 바로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액수임.

- 초보 프로듀서로서 런던 프로듀서 협회의 회원이 아닌 제작자의 경우 보증금을 미리 지불해야 하는데, 이 액수 역시 이 예산에 포함시킴.

○ 공연운영 예산비(Running cost)

- 투자유치금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
- 일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저녁 및 낮 공연 2회 기준
- 주 단위로 산정한 출연진과 스태프 임금, 극장 임대료, 장비 임대료, 그리고 극장 설비 임대료 콘트라(Contra: 임대한 극장 대관료와는 별도로 주당 지불하는 설비사용료로 화장실 휴지, 로비 꽃꽂등을 포함), 창작팀에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순수익의 15%) 등이 이에 포함

○ 작품 선정

-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은 대부분 기존의 작품 중에 골라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기존 뮤지컬 리바이벌이 아니라 신작이라 하더라도 유명 작곡가·대본작가가 이미 완성해 놓은 작품을 제작사에 의뢰함.
- 즉 제작자가 유명 영화, 가수 혹은 인기 소설 등, 공연할 소재 및 아이টে임을 염두에 두고 작곡자와 작가를 찾아 창작 팀을 구성하면서 창작을 의뢰하는 방식임.

○ 공연 제작과정

- 쇼 케이스나 페스티벌에서 찾아 낸 창작 뮤지컬의 경우는 전국적 인지도를 얻기 위해 웨스트엔드 개막 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방공연을 먼저하면서 신문평, 관객평 등을 수집하는 준비를 거침.
- 유명 뮤지컬의 리바이벌, 혹은 유명 작가·연출가의 유명영화·소설의 각색뮤지컬은 1년 전쯤 개막일을 정하고 홍보에 돌입

□ 마케팅 방식

○ 마케팅의 범위

- 미디어, 홍보, 신문, 잡지 등의 기자 및 평론가 접촉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포함함. 즉 신문, 잡지, TV에 기사가 나고 작품평이 나는 것은 홍보담당자의 책임이지만 거기에 광고 페이지를 사는 것은 마케팅팀에서 진행

○ 마케팅 사 대행

- 제작사가 마케팅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예산의 규모에 따라 수준에 맞는 마케팅 대행사를 고용함. 현재 최고의 마케팅사로 알려진 AKA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금발이 너무해, 더티 댄싱 뿐만 아니라 로얄 셰익스피어 컴패니와 국립 극장 등 20개가 넘는 프로덕션의 마케팅을 진행함.

○ 마케팅 경비

- 웨스트엔드 편당 뮤지컬 제작비 300만 파운드에는 공연이 올라가기 전까지의 사전 마케팅 경비만을 포함한 것이며 공연 기간의 마케팅 비용은 운영 경비(Running cost)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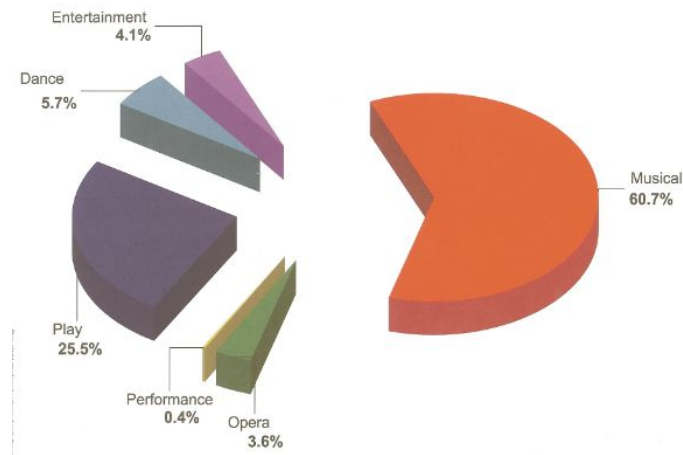
□ 웨스트엔드 콘텐츠 분석

○ 웨스트엔드 극장 공연장르

- 솔트협회에서 정의한 극장 공연의 장르는 크게 연극, 뮤지컬, 오페라, 댄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공연으로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장르	연극	뮤지컬	오페라	댄스	엔터테인먼트	공연 (Performance)
부 장 르	드라마	코메디	드라마	발레	스토리텔링	스탠드 업
	코메디	뮤지컬극장	코메디	현대	코메디	가면극
	스릴러	콘서트		세계	익살극	신체극
	셰익스피어	카바레			판토마임	멀티미디어
	풍자	희가극			매직	마임
					서커스	

〈2009년 장르별 관객 점유율〉



자료원 : SOLT BOX Office data report 2009)

○ 장기 공연 웨스트엔드 쇼 : 마우스 트랩(Mouse Trap)

- 아가타 크리스티의 마우스 트랩의 장르는 연극으로 57년째 공연됨. 1952년 11월 앰버서더 씨어터에서 막을 열고 22년 동안 운영되다가 세인트 마틴 씨어터로 옮겨 공연회수 2만4000회를 돌파함.

공연	극장 명	기간 (년)
마우스 트랩	세인트 마틴(St Martin's)	57
레미제라블	퀸스(Queen's)	25
오페라의 유령	허 메저스티(Her Majesty's)	24
블러드 브라더 (Blood brothers)	포닉스(Phoenix)	22
우먼 인 블랙 (The Woman In Black)	포천(Fortune)	21
시카고	캠브리지	12
맘미아	프린스 오브 웨일즈	11
라이언 킹	리세움(Lyceum)	11
위 월 락 유	도미니온(Dominion)	8
스톱(Stomp)	앰배서더	8

○ 최대 장기 뮤지컬 공연: 레미제라블

- 2010년 10월 카메론 매킨토시가 제작한 레미제라블이 25회 기념일을 맞이함으로써 현재 뮤지컬 최장기 리스트에 오르고 이미 막을 내린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캐츠와 동일한 기록을 세움.

○ 최고로 비싼 웨스트엔드 쇼 : 반지의 제왕

- 할리우드 영화 반지의 제왕을 뮤지컬 버전으로 제작함. 그 비용이 약 125만 파운드로 치티치티 뱅뱅(6백 2천만) 제작비용의 기록을 제침.

○ 가장 오래된 웨스트엔드 극장: 씨어터 로얄 드러리 레인

- 1576년 연극 공연장 씨어터 로얄 드러리 레인이 최초로 세워졌으며 이 지역은 웨스트엔드 극장들의 본고장이기도 함.

○ 최대 규모 극장: 런던 콜리세움

- 콜리세움 극장은 영국 국립 오페라의 중심으로 2358의 최대 좌석을 보유하고 아폴로 빅토리아 극장이 2304개 좌석으로 2위를 차지함.

□ 극장산업 관련 교육기관

○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 영국의 극장산업 교육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와 전문 직업학교들은 약 61곳임. 크게 극장예술이나 예술 공연 학과, 세부적으로 배우, 기술(무대장치, 조명), 뮤지컬 예술 과정이 있음. (특정 학과와 학교들은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 가능)

* 댄스- 교육 및 트레이닝 협의회(Council for Dance- Education and Training) : 비정부 조직으로서 극장 산업의 국가 표준 제정 기관이며 영국의 댄스 공연, 뮤지컬 극장과 관련된 인재 양성 교육 기관 및 학교들에 자격을 인증, 부여하는 역할을 함.
<http://www.cdet.org.uk>

* 드라마 트레이닝 국가 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Drama Training): 영국 극장, 방송, 미디어 산업의 고용주, 피고용주 그리고 트레이닝 제공자들과 협력 관계를 맺음어서 전문적인 드라마 트레이닝과 교육의 지원을 극대화하는 역할 <http://ncdt.co.uk>

* 유카스 UCAS(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 영국 대학 입학 총괄 기관으로 원하는 학과나 학교를 검색 가능 <http://wwwucas.com>

○ 극장산업분야

- 무대감독(Stage Manager) : 무대 감독의 주요 역할은 공연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리허설 스케줄, 극장 의상, 세트 디자인, 사운드, 조명 등을 총 관리함.

⇒ 무대 감독 극장 제작과정 (Stage Management and Theatre Production),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 극장 의상(Wardrobe): 극장 의상실 통괄, 관리하는 관리자(Wardrobe supervisor)와 작품 제작자, 감독, 무대 매니저가 요구하는 특정 의상들을 디자인하는 의상 디자이너와 의상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음.

⇒ 의상 제작과정(Costume Production), Rose Bruford College Rose Bruford College

- 조명(Lighting) : 조명 전기사(Electrician)는 조명 설치와 작동순서 계획 등을 책임지고 무대기술자(Technician)는 조명작동과 안전 등을 총괄함.

⇒ 극장 조명디자인학과(Theatre Lighting Design BA),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University of London

- 배우 : 배우들은 제작자, 감독자와 주로 작업하는데, 특히 뮤지컬 공연배우들은 노래, 연기, 춤 3가지 기술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함.

⇒ 드라마 및 극장 예술학과, 버밍엄 대학교(The University of Birmingham)

⇒ 뮤지컬 씨어터 과정(Musical Theatre), Mountview Academy of Theatre Arts Mountview Academy of Theatre Arts

- 제작자, 감독자(Producer, Director): 이들은 공연 제작회사의 모든 분야를 총괄함. 제작 예산관리, 티켓판매 공략, 대본 내용 등을 책임짐.

⇒ 극장 연출학과(Theatre Directing), University College Falmouth

⇒ 극장 연출학과(Theatre Directing), Middlesex University

- 극작가(Playwright): 극장 무대에서 공연될 대본을 책임지고 때로는 작가, 감독, 배우들과 공동작업을 하기도 함.

⇒ 드라마 창작학과(Drama with Creative Writing), University College Plymouth St Mark & St John

자료원 : SOLT, MORI 등 협회 및 코트라 런던KBC 자체조사 종합

(KOTRA, 담당: 런던 KBC 김성주(sjkim@kotra.or.kr) | 등록일 : 2010.10. 20)

[해외동향][KOTRA] 경제회복, 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라 싱가포르 Mice 산업 활성화

- Mice 시장 확대 및 전시장 간 경쟁 심화
- 신규행사 유치 등 2011년 Mice 산업 전망도 긍정적

□ 싱가포르 Mice 산업 활성화

- 싱가포르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and exhibitions) 산업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 수 증가, Mice 행사 참가 해외방문객 증가 등으로 활성화됨.
- 싱가포르 컨벤션 및 전시회 주최사 및 공급업체협회(Singapore Association of Convention and Exhibition Organisers and Suppliers)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Mice 행사 수는 2009년에 비해 20%가량 늘어나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2011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정보통신 및 미디어산업에 초점을 맞춘 CommunicAsia 2010 및 BroadcastAsia 2010 전시회에서는 2009년 대비 방문객 수가 11% 증가해 5만5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으며, 해외 방문객 수는 4000명 이상 늘어남.
- 11월에 Suntec Singapore에서 개최될 제18회 International Oil and Gas Industry Exhibition and Conference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으로, 전시 참여업체가 1500개 사 이상에 달하며, 2만2000명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회복 및 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른 Mice 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

- Mice 행사 주최사 및 컨벤션센터 운영회사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Mice산업의 회복은 경제회복과 RWS(Resorts World Sentosa), MBS(Marina Bay Sands) 등 두 개의 복합리조트 개장에 기인함.
- Raffles City Convention Centre를 운영하고 있는 Fairmont Singapore에서는 경제회복 및 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른 싱가포르 Mice산업 현황이 Mice 산업 내 모든 기업들을 위한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시켰다고 봄.
- 두 개의 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라 싱가포르 내 Mice 행사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시장 규모는 13만5000㎡에서 18만㎡가 늘어나 총 31만5000㎡에 이룸.
- MBS의 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re에서는 2010년 4월 개장 이래 15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고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음. RWS에서는 2010년 3월 개장 이래 29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고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함.
- 두 개의 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라 싱가포르 전시장 간 Mice 행사유치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음에도 Singapore Expo에서는 2010년에 World Cancer Congress, Asia Investment Banking Conference 등 15개의 신규 행사유치에 성공함.
- Mice 산업 활성화 및 전시장 간 경쟁심화에 따라 RWS와 Suntec Singapore에서는 힘을 합쳐 공동으로 10개 이상의 국제행사 유치 입찰에 참여하기도 함.
 - RWS와 Suntec Singapore에서는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낮 동안 전시회 및 회의는 Suntec Singapore에서 참석하고, 이후 시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카지노 등이 있는 RWS에서 엔터테인먼트와 어울림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싱가포르 관광업 내 Mice 산업 비중

-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2009년 260만 명의 비즈니스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비즈니스 관광객은 2009년 싱가포르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 중에서 27%를 차지함.
- 2009년 비즈니스 관광객들이 싱가포르에서 지출한 규모는 약 42억 싱가포르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싱가포르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의 지출 규모에서 약 33%를 차지함.

□ 2011년 Mice산업 전망 밝아

- 업계에 따르면 2011년 싱가포르 Mice산업 전망은 긍정적임.
 - Singapore Press Holdings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Mice 행사 주최사인 Sphere Exhibits에 따르면, 2011년에 22개의 행사를 주최할 예정으로 아시아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2011년 Mice산업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Sphere Exhibits에서는 2010년 12개의 행사를 주최함.
- 2011년에는 MBS에서 개최되는 Art Stage Singapore, Suntec Singapore에서 개최되는 World Chinese Entrepreneurs Convention 등의 행사들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될 예정임.

□ 시사점

- 세계 경제회복 및 아시아 경제성장, 복합리조트 개장 등에 따라 싱가포르 Mice산업은 2011년에도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싱가포르 경제에 기여하는 Mice산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The Straits Times 10.15자

(KOTRA, 담당: 싱가포르 KBS 유선아(monolah13@kotra.or.kr) | 등록일 : 2010.10.19)